어린이의 꿈이 울려퍼진 공간

'97 볼로냐 아동도서 전시회를 돌아보고

이호균
길벗어린이 대표

'97년 볼로냐 아동도서 전시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볼로냐 시내의 '씨에라' 전시관에서 열렸다. 제21전시관부터 30전시관까지 모두 열 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진 공간에는 25개국에서 출품한 책들을 자랑스레 전시했다. 총 전시면적은 우리나라 서울도서전의 전시관 5, 6개를 합쳐놓은 정도랄 수 있었다. 어린이책만 모은 것이 그 정도니, 사실은 전시관을 모두 다 구경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전시회가 시작되던 첫날 전시장 앞에 섰을 때, 지난해 전시회 기간 내내 아픈 다리를 끌고 전시장을 헤매며 돌아다닌 기억이 떠올라 구경을 시작도 하기 전에 다리가 아픈 듯했다. 그 덕일까? 이번에는 요령 있게(?) 30관부터 29, 28관의 순서로 보되 다리가 너무 아프거나 시간이 모자라면 21관부터 26관까지는 포기하리라 계획을 세웠다. 사실은 21관부터 26관까지는 이태리 관이었다.

유럽·미주·아시아·아프리카 등 이태리를 뺀 대부분의 나라들이 27관부터 30관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어린이 전문서점 초방을 통해 '길벗어린이'에서 만든 책들을 볼로냐에 전시해 놓고 있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열기가 덜한 느낌을 받았다. 유럽도 불경기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두번째 보는 거라서 그럴까? 이런 생각은 유럽관인 제30관, 미주 대륙과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제29관, 영국을 중심으로 한 27, 28관을 둘러보면서부터 계속 강해졌다. 간혹 눈에 띄는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 느낌은 작년보다 그다지 새롭지 않아 보였다. 주제넘은 말이 될 터이지만, 자신들이 출판해온 기존의 분야와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진 외국'의 출판사도 말이다.

그러나 29관과 30관 사이 연결통로에 전시된 우수 멀티미디어들을 보는 순간 전신이 긴장되었다. 한국에서 출품한 '조이블록'을 포함하여, 피아노 교실, 기타 교실, 구스범프 등 총 36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제까지 단순 게임이나 어학학습, 지리여행, 사전 등에 주로 적용되어왔던 멀티미디어 상품들이 악기강습, 창의성 게임 등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은 아주 새로웠다.

이태리의 일러스트레이터 레오 니오니가 참석한 워크샵.

이제 멀티미디어 북이 이렇게 영역을 넓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조이월드사에서 출품한 '조이블럭'을 보는 기쁨은 각별했다. 그것은 '레고블럭'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바꿔 놓은 멀티미디어 '레고'인데, 한국인의 주관에 치우친 것인지는 몰라도 내 눈에는 단연 돋보인 기획상품이었다. 더욱이 시상식에서 첫번째로 시상되는 모습을 본 것은 볼로냐에서의 큰 기쁨이었다.

볼로냐에서의 책 구경이 지난해보다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여전히 부러움과 출판인으로서의 부끄러움에 정신이 없었다!) 여전히 감동을 주는 것은 볼로냐 전시회를 빛내주고 지탱해 주는 문화적 힘이었다.

내가 보기에 볼로냐 전시회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볼로냐 최고의 영예라는 '라가찌(Ragazzi:이태리어로 '어린이'를 뜻함) 상'과 일러스트레이터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편집자 및 작가들의 울림이 있는 만남들, 그리고 다시 어린이가 되어 꿈을 찾듯이 전시실을 돌아다니는 모든 이들의 열띤 표정이다.

볼로냐 최고의 영예라 불리는 '라가찌상'은 출판사에 주어지는 상이다. 언뜻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으나 수상 '작품'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올해 수상작은 픽션 부문의 두 책, 《잔인한 양철병사 *DER STANDHAFTE ZINNSOLDAT*》와 《폭풍우 휘몰아치는 밤 *GEWITTERNACHT*》은 단연 압권이라 할 만하다.

이 두 책을 상업성이란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출판사는 출판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나라면, 도저히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준에선 아이들 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성과 철학성이 높은 책이었다. 추측컨대 유럽에서도 그런 반응이 앞

출판계 소식

한국어린이도서상에 김상삼씨 외

5월 7일 출협 강당서 … 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도

(왼쪽부터) 김상삼씨, 이우경씨, 이석호씨.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오는 5월7일 협회 강당에서 제8회 한국어린이도서상 및 제15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어린이도서상 저작 부문에는 《탈을 쓰는 아이들》을 쓴 김상삼씨,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 이우경씨, 기획·편집 부문에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펴낸 한국안데르센 대표 이석호씨가 선정됐다. 한편 한국과학기술도서상은 《두뇌장수학》을 쓴 서유헌 교수(저술), 《우주여행 시간여행》의 김혜원씨(번역), 《생물과학》을 펴낸 신광문화사 대표 전귀연(출판)씨, 《건축설비용어대사전》을 펴낸 기문당 대표 강해작(특별상)씨에게 각각 시상됐다.

서양동화 비판한 연구보고서

서구동화의 비현실성을 해체분석하고 성평등의 대안동화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김홍숙(40)연구원이 펴낸 《성평등 대안동화 개발에 관한 연구》는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국가의 성평등 동화 46편을 수집 분석한 자료다.

여자 어린이를 모험담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자벨의 모험》 《용감한 그레이스》 《씩씩한 마들린느》, 일하는 어머니상을 그린 《우리 엄마는 우편배달부》 《엄마의 고민》, 그밖에 아버지가 존재하는 가정, 외모에 대한 신화를 깨뜨린 대안동화들을 분석했다. 국내 동화에서는 아버지의 가사참여를 주제로 한 《아빠, 서랍 속의 이들이 웃고 있어요》, 과학탐구에 여아를 모험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은자의 우주여행》을 예로 분석했다. (356-0070)

30관에 자리한 '초방' 부스. 보리 · 보림 · 길벗어린이 · 통나무 출판사 등의 책을 출품 전시했다.(위)
'일러스트레이터 카페' 입구에 마련된 자기 소개용 자유 게시판. 중앙에 초방 대표 신경숙씨.(아래)

섰을 듯싶다.

이런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과감성과 그 책에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는 볼로냐 전시회의 의식은 출판이 철저한 문화예술활동이며 또 그래야 함을 웅변하는 것이리라고, 어린이책 출판은 더욱 그래야 한다는 선언이리라고, 그런 생각이 전시회 기간 내내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일러스트레이터 카페'의 공간 역시 그러하다. 이 공간에는 세계에서 출품된 많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림들 중 수준 높은 것들만을 뽑아서 전시하며, 아울러 한쪽에서는 그림책의 창작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태리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레오 리오니가 직접 참석한 '레오 리오니의 자취'라는 주제의 모임이었다. 영어 통역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접 대가의 입과 손짓을 통해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일러스트레이터 카페에 선정돼 전시된 그림들은 역시 수준 높은 것이긴 했지만 지난해와 스타일이 엇비슷해서 그림 선정이 다소 특정 경향이나 취향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전시장 안에 그런 공간, 사람들이 말하고 만나고 꿈의 흔적을 보여주는 공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볼로냐 전시회가 책의 판매권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의 자리 이상임을 말해준다.

서울도서전 안에 그런 공간이 설치되고, 서울도서전에서도 '라가찌상' 같은 상이 수여되어 어린이책을 만드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 지침을 주는 그런 날은 언제일까?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부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출판편집전문회사

삼연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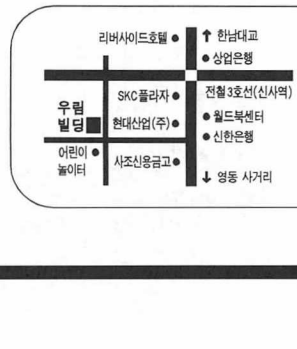
집짓기의 즐거움

새 집을 지으실 계획이라구요?
저희와 상의해 주십시오.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한 건축물이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윤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 · 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